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 코너



□ 감보로병 감염계군에서의 비타민E 고농도첨가효과

79개의 육계계군 150만수에 비타민E 고농도첨가가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하였다.

50% 정도가 감보로증상을 보이는 계군에 비타민E 첨가수준이 정상(48IU/kg)인 사료와 고농도 수준(178IU/kg)인 사료를 급여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감보로병 증상을 보이는 계군은 정상적인 계군보다 수당 평균체중, 사료요구율, 순수의 모두가 떨어졌었다. 그리고 감보로병에 감염된 계군에 비타민E 첨가정상수준인 사료 급여한 경우에 비하여 고농도 비타민E 첨가사료를 급여한 계군은 순수익이 10% 향상되었다.

한편 감보로병에 감염되지 않은 정상계군과 감염계군에서 비타민E를 정상이거나 고농도로 첨가한 계군의 순수익의 차이는 단지 2%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감보로병에 감염된 계군에 비타민E 고농도첨가사료 급여가 가져온 능력향상효과는 질병저항능력강화와 면역기능강화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써 야외사육환경에서 비타민E의 첨가강화는 개체의 항병력을 키우고 이로인한 생산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AP. 93.22)

□ 부화후 첫급이, 급수시간의 영향

육계와 칠면조에서 부화후 즉시, 24시간후, 48시간후에 각각 급이, 급수를 실시하여 병아리에 주는 영향을 이스라엘에서 연구하였다.

48시간후에도 급이, 급수가 안된 병아리는 부화당시 체중의 10% 정도 감소하였고 과온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체중감량은 더욱 컸으며 이러한 결과는 초기육성율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화후 48시간동안에 복강내 난황의 무게는 50% 정도 감소하였다.

부화후 1일째의 체중감량은 주로 난황소화에 의한 감소인데 반해 2일째의 체중감량은 감량의 2/3정도만이 난황소화에 의한 것

이었다.

체조직구성 성분도 부화후 24시간 동안은 에너지 고갈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었으나 체지방량이 부화후 48시간후에는 부화당시나 24시간후의 병아리와 비교할 때 현저히 감소하였다.

첫급이, 급수시간에 상관없이 소화장기의 크기는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화 후 48시간까지 급이, 급수가 안되면 심한 에너지결핍을 초래하여 체조직성분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인하여 초기발육 저해와 폐사율 증가를 가져온다고 결론지었다.

(IHP 94.4)

□ 인도에서 감보로병 유행

지난 몇개월간에 인도의 양계농장은 감보로병에 시달리고 있다.

타밀과 안드라 지역에서만도 60만수 이상이 감보로병으로 죽었다.

유행은 지난해 초에 시작하여 6월경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감보로병은 질병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기관인 웨브리셔스낭을 파괴하여 타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형성능력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도양계농가에 2~3년전에 유행이 되었다가 그후 문제가 거의 없었기에 방역에 방심하는 사이에 이번에 크게 발생이 된 것이라 하였다.

(WP. 94. 5)

□ 유전공학을 이용한 살모넬라균백신

호주 빅토리아의 RMIT대학은 닭과 다른 동물의 살모넬라균에 대한 백신을 유전공학을 이용하여 개발한 백신을 이용한 시험계획을 유전학조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발의 목적은 살모넬라 티피뮤리움균의 변이를 통하여 만든 음수용 생독백신으로 급성 살모넬라균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평가에서는 음수투여하는 이 균주가 동물이나 주위환경에서 증식할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 특수한 균주는 유전물질을 제거하고 어떠한 비타민에 의존하는 물질을 새로이 만든 것이다.

이 균주에 대하여 실험실내 시험에 이어 야외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는 닭과 칠면조에 전면적인 사용은 농장에서 시험하기 전에 추가적인 안정성이 검토된 다음 여러환경조건에서 이 균주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WP 94. 5)

□ 건강란생산

캐나다에서 양계사료에 아마박을 첨가하여 오메가-3지방산 함유량을 높인 특수란을 만들었다. 오메가-3지방산은 사람음식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관상동맥 질병발생을 감소시켜준다.

이 새로운 특수란은 난각에 "Born 3 Egg"라고 프린트되어 슈퍼마켓에서 팔리고 있다.

(WP 94. 5)